

YONHAP | 연합리페르
REPÈRE

- ☞ 목차
- ☞ 과월호
- ☞ 정기구독신청
- ☞ 사진구입



Feature

Travel by Bike

두 바퀴로 떠나는 해외여행

■ 글/임동근 기자·사진자료/정경복(다음 카페 '세계자전거여행' 운영자)

사각형 차창 밖의 세상은 스치듯 빠르게 지나가버린다. 고속 페달과 브레이크의 조작이 있을 뿐 창밖의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한다. 행인들도 자동차에 눈길을 줄 뿐 차 안의 여행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은륜에 올라 페달을 밟으면 세상이 한결 가까워져 있음을 느끼게 된다. 느리게 나아가다 보면 풍경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현지의 생생한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흔히 자전거를 두고 '인류가 만든 가장 아름다운 발명품'이라고 말한다. 자전거는 연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절약되고, 자연을 오염시킬 염려가 없는 자연친화적 교통수단이자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1석 3조의 도구이다. 자전거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유용한 도구이다. 동네 산책이나 장보기, 가벼운 운동이나 여가를 위해 강변을 달리는 것이 일반적인 자전거 운용법이다. 물론 주말을 이용해 도시 근교로 하이킹을 떠나거나 강촌이나 남이섬 같은 관광지에서 주변 풍경을 돌아보기 위해 이용하기도 한다.

고환암을 이겨내고 세계 최고의 사이클 레이스인 투르 드 프랑스를 7연패한 란스 암스트롱의 최근 방한, 자전거를 집 삼아 3년째 자전거로 세계여행을 하고 있는 리처드 페어지와 스타니 마틴코바 부부, 전국 산하를 돌면서 쓴 소설가 김훈의 '자전거 여행' 등은 자전거 타기 붐을 일으키고 있다. 자전거 타기는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자전거를 타고 해외여행에 나서는 이들도 있다. 정경복(31, 직장인)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자전거로 아시아를 거쳐 유럽을 여행했다. 베트남과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를 여행하고, 유럽으로 넘어가 영국, 스페인, 파리를 두 바퀴로 돌았다.

병역을 끝마친 후 어학연수를 가려다가 우연히 선배 자전거 해외여행자들의 책을 읽다가 자전거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자전거로 아시아와 유럽을 돌아본다는 것이 힘들어 보이긴 했지만 젊은 시절에 한번쯤 도전해 볼 만한 모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정 씨가 꿈는 자전거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은 현지인들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이다. 어느 시골의 작은 마을에 들러 가정집의 뒤뜰에 텐트를 치고 주인이 건네주는 음식도 먹고, 세상사는 얘기들을 나누는 일이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 현지인의 초대로 집을 방문했던 일들이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됐다. 그는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 바로 자전거의 느린 속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배낭여행이나 자동차 여행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물론 캠프장에서도 현지인이나 다른 여행자를 만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생활을 있는 그대로 접하는 것은 캠프장이 아닌 그들의 생활공간에서 가능하죠. 자전거로 여행하면 뜻하지 않은 만남으로 여행이 더욱 풍성하게 됩니다.”

그는 대도시의 관광 명소보다는 사람들을 만나는 데 집중했다. 파리의 에펠탑이나 런던의 타워브리지는 10년 후에 방문해도 그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지만 그곳의 사람들은 그때가 아니면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자전거 여행은 추억과 낭만만을 전해주지 않는다. 2~3일에 한번쯤은 아침 9시에 출발해 해가 질 때까지 하루 50~100km를 달려야 한다. 평소 자전거를 꾸준히 탔거나 MTB 동호회 활동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면 견디기 힘든, 엄청난 체력이 요구되는 일이다.

“처음에는 엉덩이와 다리 근육에 통증이 있지만, 1~2주만 견디면 체력이 좋아지고 적응이 돼서 나머지 일정은 거뜰히 해낼 수 있습니다.” 강인한 체력이 요구된다고 해서 남성들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김다혜(23, 대학생) 씨는 지난해 여름방학을 이용해 1달 동안 자전거로 유럽을 여행했다. 국내에서 MTB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전거 여행이 그렇게 낯선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프랑스 파리-퐁텐블로-디종, 리옹-스위



스 제네바-인터라켄-루체른-취리히, 독일 파사우-체코 체스키크룸로프 구간을 자전거로 여행했다. 짧은 여행 기간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는 기차를 이용하기도 했다. “자전거 여행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였어요. 여자 혼자 자전거를 몰고 유럽을 한 달간 여행한다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막상 해보니 유럽은 여자 혼자서도 충분히 여행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자전거 도로도 잘 돼 있어 위험하지 않았고요.”



김 씨도 자전거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은 현지인들과의 만남에 있다고 했다. 가고 싶은 곳 어디라도 갈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았다. “독일 파사우 북쪽 발트키르헨(Waldkirchen)에서 자전거 바퀴살이 부러진 적이 있어요. 그곳을 지나던 독일인이 이웃에 자전거 수리점이 있다며 집으로 초대했어요. 자녀가 4명이고,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곳에서 이틀을 보냈죠.” 지역 신문과 인터뷰를 한다는 조건으로 자전거 수리도 무료로 할 수 있었다. 독일의 시골 생활을 고스란히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그녀는 “그때의 기억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남미를 자전거로 돌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렇듯 자전거로 떠나는 해외여행은 건강과 체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면 누구나 도전해볼 만한 일이다. 또 현지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진정한 해외여행을 위한 좋은 방법이다.

여행 준비와 현지에서의 여행 시작

자전거로 여행할 때는 주로 캠핑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짐이 많아진다. 자전거는 물론 자전거 수리 도구, 텐트와 침낭, 매트리스, 버너, 식기 등 캠핑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져가야 한다. 짐의 무게가 늘어나는 것은 감수해야 하며, 자칫 항공 수하물 중량 초과로 비용을 더 지불할 수 있다. 짧은 여행이라면 배낭을 어깨에 짊어지고 할 수 있겠지만 이동이 많은 장기간의 여행이라면 허리와 어깨에 굉장한 무리가 오고, 여행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고행으로 변해버린다. 자전거 여행 경험자들은 몸에는 아무 것도 메지 말라고 조언한다.

자전거 여행에서는 흔히 패니어(Pannier)라고 부르는 가방을 부착해 사용한다. 패니어는 옛날, 말이나 당나귀의 등에 양쪽으로 달고 다니던 주머니에서 유래한 것으로 자전거 앞뒤 바퀴 양쪽에 걸어 사용한다. 양쪽 주머니에 동일한 무게로 짐을 싣는 것이 좋고, 자전거의 무게중심이 뒤쪽에 쏠려 있기 때문에 짐의 60%는 앞바퀴에 배분할 것을 권한다. 자전거 뒤에 트레일러를 연결해 사용하기도 하는데 짐은 더 많이 싣을 수 있지만 운행 시 무게감은 패니어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 장거리 여행을 준비할 때는 펑크 때우기, 브레이크 유격 조절 및 갈기 등 기본적인 수리 및 응급처치 방법을 미리 배워야 하며, 이를 위한 공구도 준비해야 한다. 페달에 발을 고정시키는 클릿 신발이나 자전거 받침대는 선택사항이며, 지도상에서 현재의 위치를 알려주는 GPS(위성항법장치)는 큰 도움이 된다.

현지에서 자전거를 구입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공항에서 자전거를 비행기에 싣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일단 자전거를 포장하기 위한 가방이나 종이상자를 준비한다. 자전거 가방은 비용이 따로 들기 때문에 주로 자전거 상자를 이용하는데, 자전거 판매점에서 얻을 수 있다. 포장용기를 구한 후에는 가방이나 종이박스에 맞게 자전거를 분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앞바퀴만 분리한 후 앞바퀴에 연결된 핸들을 옆으로 비틀어 넣는다. 박스가 작을 경우에는 앞뒤 바퀴, 시트포스트(안장을 지지해주는 막대모양 부품), 안장, 변속기, 핸들바 등으로 분리하기도 한다. 그러나 목적지에 도착해서 조립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변속기 부분은 천이나 솜 등 완충제로 감싸서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하고, 자전거의 각 부분이 충격으로 인해 휘거나 변화되지 않도록 끈으로 묶어서 고정시키는 것이 좋다. 이후 나머지 공간은 솜가시나 매트리스 등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것들로 채워주는 것이 좋다.

공항에는 일반적인 해외여행 때보다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다. 자전거를 포장한 박스나 가방은 일반적으로 크기가 가로 45cm, 세로 90cm, 높이 70cm 이상으로 대형수하물로 분류된다.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꼬리표(Tag)를 받은 후, 인천공항 3층 D 또는 J 카운터 뒤쪽의 대형수하물 전용 카운터에서 탁송하면 된다.

목적지 공항에 도착하면 수하물로 붙였던 짐과 자전거를 찾아야 한다. 자전거를 대형수하물로 탁송했다고 해도 수령하는 방법은 일반 수하물과 같다. 짐을 수령한 후 공항을 빠져나와 적당한 장소에서 자전거를 조립하면 고대하던 여행이 드디어 시작된다.

자전거로 여행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전용지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유럽사이클리스트연맹(www.ecf.com), 미국 어드벤처 사이클링 협회(www.adventurecycling.org), 캐나다트레일(www.canadatrails.ca) 등 대륙이나 국가별로 자전거 도로나 여행 루트를 제공하는 곳에서 지도를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지만 현지 서점이나 자전거 전문 숍에서 판매하는 지역별·도시별 자전거 전용지도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자전거 도로 표시와 함께 구간 거리, 관광지, 캠핑장 등에 대한

정경복 씨의 자전거 여행 준비물

자전거(허머 LX), 타이어 2개, 튜브 2개, 펌프, 펑크패치 세트, 스페너, 체인 오일, 청소도구, 자물쇠 2개, 장갑, 헬멧, 고글(선글라스), 트레일러, 텐트, 침낭,



정보가 담겨 있어 유용하다.

자전거 여행 시 가장 주의할 것은 자전거의 분실이다. 여행 중 물건을 분실하면 즐거움이 반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특히 자전거를 이용하는 여행에서 자전거의 분실은 이동수단을 잃게 돼 자칫 여행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자전거 도난은 유럽, 미국, 일본, 동남아, 중국 등 어떤 장소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자전거와 떨어져 있을 때는 튼튼한 자물쇠를 사용해야 하고, 인적이 드문 곳이나 한적한 골목에 세워두기보다는 사람의 왕래가 잦은 자전거 보관 장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 캠핑을 할 때는 자전거 바퀴를 베서 텐트 안에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매트리스, 레인커머 2개, 머니, 코펠, 수저세트, 삼의(반팔 티셔츠 1개, 긴팔 티셔츠 2개, 방수점퍼, 윈드 재킷), 하의(반바지, 바지, 속옷 2개), GPS, 노트북, 카메라, PDA, 충전기, 여권, 증명사진, 책 7권 등 총 무게 60kg.



자전거 여행 추천 루트

자전거로 돌아보면 좋은 여행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도심에서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고,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는 자동차나 버스, 기차를 대신한다. 그러나 자전거로 돌아볼 때 진정한 아름다움과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들이 있다. 자전거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마니아들이 추천하는 루트를 소개한다.

태국 푸껫~싸똌 해안 도로

푸껫(Phuket)을 출발해 끄라비(Krabi), 트랑(Trang) 등 안다만(Andaman)의 유명 관광지들을 거쳐 말레이시아와 인접한 싸똌(Satun)까지 이어지는 해안도로는 투명한 인도양의 풍경을 감상하며 달릴 수 있는 곳이다. 자동차로는 8시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자전거로는 이틀 정도를 예상해야 한다.

말레이시아 이포~캐머런 하일랜드 고원

쿠알라룸푸르 북서쪽의 도시 이포(Ipoh)에서 캐머런 하일랜드(Cameron Highland)로 이어지는 약 50km의 고원 도로는 말레이시아 산간 마을 풍경을 감상하며, 오르막과 내리막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야채, 차, 꽃 농장 등이 곳곳에 있어 중간에 멈춰서 둘러보면 좋다. 평지보다 기온이 낮기 때문에 가벼운 점퍼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티베트~네팔 카트만두

티베트에서 출발해 네팔 카트만두까지 이어진 약 960km 거리의 우정공로(friendship highway)를 지나는 코스로 3000m 이상의 고지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는 험난한 길이다. 하루 60km 이상을 이동해야 20일 일정으로 끝마칠 수 있는 구간으로 광활한 자연과 접할 수 있다.

타클라마칸 사막 횡단

중국 신장지구의 타클라마칸 사막을 횡단하는 코스로 우루무치에서 기차를 타고 룬타이까지 이동한 후 자전거로 타클라마칸을 여행하고 다시 기차를 이용해 우루무치로 되돌아오는 일정이다. 사막 지형과 풍경을 감상하고, 사막에서 야영을 하며 여행하는 구간이다.

영국 다투어(Dartmoor)국립공원

영국 잉글랜드 데번(Devon)카운티 남부의 평균 해발고도 518m의 고원지대로 푸른 초원과 황야, 기괴한 바위산이 이루는 경치가 뛰어난 곳이다. 약 40km에 걸쳐 이어지는 지루하고 힘든 오르막이 있지만 내리막에서는 최고 시속 60km 이상으로 달리는 쾌감을 만끽할 수 있다. 여유 있게 돌아보는 것이 좋으므로 3~4일 정도를 예상하는 것이 좋다.

피레네(Pyrenees) 산맥

스페인 국경 동쪽 8km 지점의 프랑스 세장피드포르(St. Jean Pied de Port)에서 출발해 스페인의 론세스바예스(Roncesvalles)로 이어지는 산간 도로를 달리는 코스이다. 해발 2000m를 오르내리면서 시야를 어디에 돌려도 사진 속에 담고 싶은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과 목가적인 풍경을 만날 수 있다. 내리막에서 최고 시속 70km까지 질주할 수 있다. 하루 코스로 적당하며, 론세스바예스에서는 옛 수도원을 개조한 숙소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겠다.

스위스 피르스트~그린델발트

관광객 대부분은 곤돌라를 이용해 피르스트까지 올라 둘러본 후, 중간의 보르트 역에서 내려 걷거나 브레이크가 없는 트로티바이크를 빌려 내려간다. 오르막이 무척이나 힘겹기는 해도 자전거로 오르내리는 것은 흥미로운 경험이다.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대한 알프스를 감상하고, 넓게 펼쳐진 초원에서 소들이 풀을 뜯는 목가적인 풍경을 달리며 자연 속에 파묻힐 수 있다.

독일 로맨틱 가도와 고성 가도

독일은 로맨틱 가도를 비롯해 고성 가도, 메르헨 가도, 판타스틱 가도 등 자전거 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다. 로맨틱 가도는 고도 뷔르츠부르크에서 로텐부르크, 켈스벨, 아우쿠스부르크, 뤼센까지 이어지는 약 350km의 유명한 길로 아름다운 풍경은 물론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만하임에서 하이델베르크, 로텐부르크로 이어지는 고성 가도는 언덕마다 그림 같은 고성들이 서 있어 또 다른 즐거움을 주는 곳이다.



미국 루트(Route) 66

시카고에서부터 세인트루이스, 털사(Tulsa), 오클라호마, 산타페, 플래그스태프(Flagstaff), 로스앤젤레스를 잇는 3940km의 횡단 도로로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길이다. 소설 '분노의 포도'의 작가 존 스타인벡이 '마더 로드(Mother Road)'로 불렀던 곳으로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으로 많은 여행자들이 지난다. 도로 양쪽으로 펼쳐진 광활한 대평원을 지나며 미국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코스이다. 지도상에 잘 표기되지 않을

정도의 잊혀진 도로로 현재 복원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의회의 추가 승인을 얻지 못하면 2009년에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운명이다.

[▲ top](#)